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불만이 없다고 의욕이 생기진 않는다,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(Herzberg's Two-Factor Theory)

원문 주소

https://www.gklibrarykor.com/12406/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월급이 오르고 사무실이 쾌적해지고 사내 규정이 합리적으로 바뀌었는데도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반대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맡은 일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. 만족의 반대말이 불만이라면 불만을 없애는 것만으로 의욕이 생겨야 할 텐데,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어긋남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한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 프레더릭 허츠버그(Frederick Herzberg)이고, 그의 이론이 바로 2요인 이론(Herzberg's Two-Factor Theory)입니다. 직무에 대한 만족을 만드는 요인과 불만을 만드는 요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묶음이라고 보는 것이 핵심이며,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라는 두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본 자료에서는 허츠버그가 이 이론을 어떻게 끌어냈는지,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은 각각 무엇인지, 그리고 이 이론을 일터에 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 만족과 불만을 따로 보는 눈 면담에서 시작된 이론 허츠버그는 사람들이 일에서 언제 몹시 만족하고 언제 몹시 불만스러웠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. 대상은 미국 피츠버그 지역의